

미래세대 위한 생명의 쌀... "제2의 녹색혁명 꿈꾼다"

"앞선 한국 농업기술 개도국에 전파해야"

하노이=글·사진 송기동기자

"올해 스리랑카 농부들은 답수작과 94%, 모내기 4%, 건답작과 2%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1976년에는 손 모내기가 100%였던 것이 34년간에 4%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스리랑카 비연구소 위다쿤 박사는 자국의 직파 성공사례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고 있는 '세계 쌀회의'(IRC 2010)에서 발표했다.

베트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경우 건기와 우기 모내기 때 손뿌림 직파가 50~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앙기를 이용한 기계 모내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주요 쌀생산 국가들에서 직파가 선호되고 있는 것은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거친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듯이 농촌의 젊은 층이 도시로 나가 일하려 해 농업인력의 대다수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직파농법은 현대화된 농기계나 농업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부들이 손수 법씨를 뿌려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 쌀생산 국가들은 농업기 계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직파관련 연구논문 수십편이 발표될만큼 전세계 쌀과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논문발표장은 300 여개의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IRC 2010에 참가한 세계 각국 쌀과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위 상에 걸맞게 동남아를 비롯해 개발도상국 쌀농업국가에 농업기술을 전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농업기술 을 지원해 농업발전을 돕는 문제(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서울에서 열 리는 G20의 환율갈등 조정,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과 함께 4대

의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에서 만난 각국 쌀과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전정의 폐허 를 딛고 눈부신 농업기술 발전과 성과를 이룬 '모델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정으로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고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 기 까지 개도국에 대한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FAO) 등과 같은 국제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전쟁후 폐허에서 '경제규모 세계 15위'를 이룰 정도로 성장한 국 격에 맞춰 수십년전 우리나라 수준에 머물고 있던 개도국들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때라는 지적이다. 일본과 중국은 이 미 베트남과 미얀마 등에 농업개발 등 투자확대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G20을 앞두고 가진 라디오연설을 통해 "개도국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함께 도와 주자"면서 이번 서울회의에서 개발도상 국 지원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 델리마 하스리 아자하리 박사는 '한국인의 정 신적 근면성'을 가장 배울점으로 꼽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쌀생산 방 식 등 많은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워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과학원 누엔 반 뚜앗(54) 부소장 역시 "베트남 농은 한 국처럼 소규모여서 소형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직파기를 시작으로 콤팩트, 비료살포기, 로터리 등 농업기계화를 조기에 이뤘으면 한 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 교수는 "세계 인구 68억여명 가운데 14. 6%인 10억여명이 하루 세계 밥을 못먹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가난 과 빈곤피해를 위해 일본, 중국과 차별화된 한국농업의 '고기잡는 밥'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 했다.

song@kwangju.co.kr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있는 '세계 쌀회의'에 참가한 쌀과학자들이 벼 성장 포스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4년마다 열려 '쌀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쌀'을 주제로 마련됐다.

해외서 각광받는 광주 G-금강 '복토직파기'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등 쌀농사 국가 들이 기계화를 서두르며 모내기과정을 없애고 법씨와 비료를 동시 에 심는 직파기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 5일간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있는 '2010 세계쌀회의'에서 G-금강(주) 문성현(29) 대리는 자사제품 '복토직 파기'에 관심을 갖고 부스를 찾은 세계 각국 쌀과학자와 농업인들에 게 자신감있게 설명했다. 광주에 본사를 둔 G-금강은 이번 대회에 국내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쳤다.

베트남, 인도 등 쌀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농 촌인력난을 겪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며 젊은 층이 농촌대신 도시 에서의 새로운 삶과 직장을 찾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 '복토직파기'가 쌀농사를 짓는 국가들의 뜨거 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랙터 뒤편에 부착하는 형식의 복토직 파기는 6개 또는 12개의 씨앗통을 장착해 앞으로 진행하며 '땅 뒤집기 →씨앗-비료 뿌리기-땅 덮어주기'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

특히 육묘와 모내기 과정없이 법씨를 받아서 기계로 직접 점파 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수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5년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단장 박광호 교수)과 G-금강 연구진이 공동개발한 후 국내에 3000여대가 보급됐으며 해외에도 23개국에 보급됐다.

올해 초에는 필리핀에 본부를 둔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베트남 농업과학부에서 복토직파기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수확기를 7~ 12일 앞당길뿐만 아니라 물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수



광주업체인 G-금강(주)이 제작한 '복토직파기'를 쌀과학자들이 살 펴보고 있다.

량 증대 9%, 작업량 60~75%절감, 생산비 28% 절감, 순수익 187% 증대로 나타나 미국산 단권직파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북한과 방글라데시, 쿠바 등에서도 농업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여 실증시험을 진행,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미작연구소 수석 곡물생리학자 평샤오빙(48) 박사는 "IRRI 시험결과 성능이 뛰어나 중국 우한(武漢)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 획"이라며 "한국 농기계가 세계 농업현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RI 로버트 자글러 소장

"농부들이 부딪치는 문제 해법 찾을 것"

"이번 '세계 쌀회의'는 주요 쌀국가들 과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기술적인 발전 을 공유하며 농부들이 부딪치는 도전적 인 문제들의 해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고 있는 '2010 세계 쌀회의'를 주최한 세계미작연 구소(IRRI) 로버트 S. 자글러(59) 소장은 "가뭄과 태풍 등 나쁜 환경여건속에서도 안전하게 벼를 생산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중점적 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IRRI는 미국 록펠러 재단과 포드재단 의 도움으로 1960년 세워진 기구로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특히 기적의 법씨라 불리는 'IR 8'을 개 발, 우리나라 배고픔을 해결하고 쌀 자급 자족을 가능하게 한 '뽕잎벼'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본부에 1300여명, 한국 등 15개국 지소에 200여 명 등 모두 1500여명의 연구원을 비롯해 전세계 500여개 대학, 연구기관들과 파트 너를 형성해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를 연구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상주 연구 원과 대학생 인턴 등을 파견, 종자 증식사 업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물 관리와 비옥도 증진 등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글러 소장은 "앞으로도 병충해와 기 후변화에 대응한 벼종자 개량 연구를 통 해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잘살 수 있도 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옥상

1. 시공전 / 단열메이스트방수 2. 단열메이스트방수 / 트라이슈머방수 3. 트라이슈머 방수 4. 옥상시공 후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온·냉방비 절감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50% 이상, 냉방비 절감 15~20%
겨울철 실내온도 3~5°C, 난방비 절감 15~20%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